

한풀이 나선 벤투호, 오늘 필리핀 상대 열전 스타트

오후 10시30분 아시안컵 C조 1차전



59년 만에 아시아 정벌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필리핀을 상대로 2019 아시안컵(AFC) 아시안컵의 첫 발을 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7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필리핀과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갖는다. 자타 공인 '아시아의 호랑이'로 통하지만 유독 아시안컵과는 연이 없다. 12회 대회 우승컵을 모두 거머쥐며 경쟁국들을 압도한 뒤로는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무

관으로 흘러보낸 세월은 올해로 59년째다. 지난해 러시아월드컵 독일전 승리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르네상스 시대를 연 한국 축구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다. 첫 관문에서 만난 상대는 필리핀이다.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를 위협할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리핀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16위로 한국(53위)보다 63계단이나 낮다. 한때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었

던 �벤 에란 에리손 감독 부임 후 전력이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계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베트남과의 최근 3연전에서 모두 패했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7전 전승으로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36골을 넣는 동안 단 1골도 내주지 않았다. 물론 한국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독일을 꺾었던 것처럼 축구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벤투 감독 역시 선수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면서 차분히 결전에 대비하고 있다. 필리핀전에는 주전 선수 대다수가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토트넘)이 아직 소속팀에서 칼날을 갈고 있는 가운데 공격진은 황의조(갑바 오사카)가 선봉에 설 공산이 크다. 추후 진행될 토너먼트를 떠올리면 약팀인 필리핀을 상대로 골 감각을 끌어올리는 편이 유리하다. 황의조 외에 황희찬(함부르크), 이정용(보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이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이치로, 시애틀 선수로 도쿄돔 개막전에 선다



미국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령 타자 스즈키 이치로(46)가 2019시즌에도 그라운드를 누빌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5일 "시애틀 매리너스가 이치로에게 일본 도쿄돔에서 열릴 개막전에서 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개막 로스터에 이치로가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애틀은 오는 3월20~21일 도쿄돔에서 오슬랜드 애슬레틱스와 2019시즌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을 치른다. 도쿄 개막 로스터에는 28명을 기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치르는 나머지 정규 시즌 경기는 28명이 적용된다.

전남드래곤즈, 골키퍼 박준혁 선수 영입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청명)가 지난 시즌 대전에서 후반기 반등을 이끌었던 박준혁을 영입했다. 박준혁 선수는 전주대 출신으로 183cm, 79kg로 골키퍼로서 큰 키는 아니지만 순발력과 반사신경이 뛰어난 선수이다. 2010년 경남을 통해 프로에 데뷔하여 9시즌 동안 181경기에 출전하였고 특히 지난 시즌 대전에서는 영점대 실점율(경기당 0.94골)을 기록했다. 전남드래곤즈는 박준혁 선수가 지난 시즌 보여줬던 능력을 올 시즌 전남에서도 보여주며 수비력을 끌어올리고 골문을 안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혁 선수는 "전남팀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호승 선수가 있어 주전경쟁이 치열하겠지만 동계훈련 때 준비 잘하여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입단 소감을 말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박준혁 선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수영입에 뛰어들었다. 광양=김승호 기자

손흥민, FA컵 통해 6G 연속 공격포인트...시즌 12호골

도움 2개도 추가...토트넘, FA컵 32강 진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이 1골 2도움을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손흥민은 5일(한국시간) 영국 버컨헤드의 프렌던 파크에서 열린 트랜미어 로버스와의 2018~2019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64강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1골 2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7-0 대승에 일조했다. 손흥민은 3-0으로 앞선 후반 12분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렸다.

페네티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하려는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속인 뒤,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트랜미어의 골네트를 갈랐다. 시즌 12번째 골이다. 앞서 도움도 2개 추가했다. 컵대회와 리그를 포함해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사냥에 성공했다. 지난달 20일 아스널과의 카리바오컵(리그컵) 8강에서 골맛을 본 손흥민은 24일 에버턴전(2골 1도움), 27일 본머스전(2골), 30일 울버햄튼전(1도움), 1월2일 카디프

시티전(1골 1도움)에 이어 이날 1골 2도움을 추가한 것이다. 시즌 12골 8도움으로 세 시즌 연속 20공격포인트도 달성했다. 토트넘은 대승으로 32강에 무난하게 진출했다. 상대가 리그(4부리그) 소속으로 약체였기에 손흥민의 휴식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선발로 내보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의 첫 공격포인트는 후반 초반에 나왔다. 토트넘이 전반에 1-0으로 앞선 후반 3분 손흥민이 우측에서 땅볼 크로스를 통해 페르난도 요렌테의 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7분 뒤에도 정확한 패스로 오리에의 세 번째 골을 도왔다. 토트넘이 3-0으로 달아난 후반 12분에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아 돌파한 후, 왼발 슈팅으로 직접 골을 터뜨렸다. 10분 사이에 1골 2도움을 몰아쳐 무서운 집중력과 폭발력을 보여줬다. 요렌테는 헤트트리로 공격을 이끌었고, 후반에 교체로 투입된 해리 케인도 골을 기록하며 기쁨을 풀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9일 첼시를 상대로 카리바오컵(리그컵) 준결승을 갖는다. 뉴시스

"원더풀 시즌 보내는 SON, 또 빛났다"

영국 BBC, 평점 9.3점으로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을 통해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사냥에 성공했다. 1골 2도움으로 토트넘의 32강 진출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5일(한국시간) 영국 버컨헤드의 프렌던 파크에서 열린 트랜미어 로버스와의 2018~2019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64강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1골 2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7-0 대승에 일조했다. 손흥민은 3-0으로 앞선 후반 12분 팀의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며 2경기 연속 골에 성공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의 골이 터지자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경기가 끝났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더풀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이 다시 한 번 빛나는 순간이다"며 "(2도움 후) 직접 골을 만들었다. 하프라인에서부터 달려 트랜미어의 수비를 넘어 왼발로 골을 넣었다"고 전했다. 앞서 도움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숨을 죽듯 멋진 플레이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패스를 성공했다"고 했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후반 3분 우측을 돌파해 땅볼 크로스로 페르난도 요렌테의 골을 도왔고 7분 뒤 오리에의 골을 어시스트

했다.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와 세 시즌 연속 20공격포인트를 달성했다. 시즌 12골 8도움이다. 지난달 20일 아스널과의 카리바오컵(리그컵) 8강에서 골맛을 본 손흥민은 24일 에버턴전(2골 1도움), 27일 본머스전(2골), 30일 울버햄튼전(1도움), 1월2일 카디프 시티전(1골 1도움)에 이어 이날 1골 2도움을 추가한 것이다. 유럽축구 통계전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9.3점의 평점을 줬다. 헤트트리를 기록한 요렌테가 10점으로 가장 높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오는 9일 첼시와의 카리바오컵(리그컵) 준결승을 고려해 후반 20분 손흥민을 불러들여 쉬게 했다.

지역광고·이벤트·정문·특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경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자연, 갈매마을, 화엄사, 설진강, 운곡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